

를 내세우기에 앞서 우리는 한 배를 탄 양계인들로써 근본 문제를 정확히 직시하고 풀어가면

서 한걸음씩 양보하여 업계발전에 매진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방안

낮아진 사료요구율, 농가부담 커진다

이 희 동 국수농장 대표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장기간 이어온 육계불황... 뒤이은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이상기온에 의한 혹서피해 등 육계업에 맡겨놓은 이후 너무나 혹독했던 시련이 최근 몇 년 사이에 일어났다.

닭의 해를 맞이하여 우리 양계인들은 한껏 부풀어 있다. 지난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를 완전히 불식시키고 새로운 재기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은 우리 육계인들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80%에 가까이 계열화에 참여하고 있는 육계 생산자들의 생계가 가면 갈수록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우리 육계인들은 계열화 사업에 길들여져 왔으며, 생산자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계약서에 의해 불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미 만들어진 표준계약서조차 계열사

들의 냉대속에 외면당해오면서 생산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최근에는 예전보다 더 열심히 닭을 키워봐도 노력에 대한 대가가 나오지

않는다. 물론 계열사 직원들이 과거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사양관리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같은 원인은 낮아진 사료요구율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으며, 병아리 등 원자재의 품질이 과거보다 낮아졌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사료요구율이 낮아지면서 육계인들은 성적을 높이기 위해



| 특집 ·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화 방안은 없는가!

서 영양제와 발효제를 추가로 비용을 들여가며 사용하는 등 이중적인 낭비를 하고 있다. 이는 5만수를 사육하는 농가의 경우 추가로 150~200만원정도의 비용이 더 드는 셈이며, 이 돈은 고스란히 농가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과거에는 5일 이내 폐사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해주었으나 최근에는 농가에 폐사가 발생하면 전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필자의 경우도 5만수 계군중 1주일에 1,500수의 폐사가 발생했는데도 그대로 피해를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 혹서기때 스트레스를 받은 종계군들이 현재 병아리 생산에 가담하면서 품질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사양가들이 사육에 전

념하여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약추정도는 가려주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닌가? 금년에는 이러한 병폐가 사라졌으면 한다.

우리지역 육계인들의 실정을 보면 육계가격이 지난해 하반기 동안 좋은 시세를 형성하면서 육계를 사육하는데 어느정도 만회가 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열주체들만 재정이 튼튼해지고 농가들은 과거보다 더 못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토로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이를 면밀히 검토하여 불공정한 거래가 진행되어 왔다면, 하루속히 과거의 계약조건으로 환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농가와 계열주체가 서로 믿고 공유할 수 있는 표준계약서의 활용 방안 마련에도 서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육계사육표준계약서 활용방안

수평적 동반자라는 생각으로 문제 해결을...

김 국 록 본회 대구경북지회 구미육계지부장

2005년 을유년 닭의 해가 동쪽에서 붉게 떠오르는데도 양계, 특히 육계업에 종사하는 사육인들은 별로 밝게 못 느껴지는게 비단 필자 혼자만의 모습일까요?

말 그대로 다사다난했던 2004년, 지난 25년간 육계업을 하던 중 정말 가장 지긋지긋했던 해라고 생각한다.

2003년 12월 천안에서 전국 지부장회의 때 육

계분과위원장이신 강용식 회장이 “충북에서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했대요.” 하고 얘기해도 우리들은 “언제는 겨울에 안 왔나!” 하고 넘어갔는데 이게 어

